

그대가 내 안에

아내 요꼬의 죽음 이후, 매일 술로 지새우던 제이는 아내의 기일에 맞추어 서울로 향한다. 아내의 묘지를 찾은 제이는 딸 유리의 연주 장면을 보여주고 내려오는 데 후배 제니가 와서 제이를 데리고 시내로 가 설령탕을 사 준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히토미는 30년 넘게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된다. 바뀌지 않는 매일의 생활에 답답해하던 중, 서울에서 일본어선생으로 일하는 친구 마이의 추천으로 히토미는 엄마의 반대를 무릅 쓰고 서울로 간다. 서울의 북한산 자락 아래에 있는 문화촌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간 히토미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동네에서 카페를 오픈하는 데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가 오지 않는다.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엄마 집에서 잠을 잔 제이는 아침에 아이스커피로 해장을 하기 위해 동네 카페를 찾던 중 히토미의 카페로 들어가고 히토미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지만 손님이라서 당황해한다.

제이는 히토미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알고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고 히토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짜장면도 시켜 먹고 끝말잇기 게임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제이는 히토미에게 삼겹살 내기를 하는데 끝말잇기에서 패하고 히토미를 데리고 식당으로 간다. 맛있게 저녁을 먹은 두 사람은 동네의 하천을 거닐며 공연도 보면서 데이트를 하게 된다. 히토미를 집에 데려다 준 제이는 내일 아침에 오겠다고 하고 히토미와 작별인사를 나눈다.

다음날 아침, 히토미는 제이를 기다리지만 제이는 오지 않는다. 제이는 제니의 병원으로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각막이식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 아침 약속을 잊은 제이는 떡볶이를 사서 히토미의 카페로 가는데 히토미가 빈혈로 쓰러지자 히토미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간다. 제이와 매일 데이트를 하던 히토미는 제이가 아내와 사별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제이는 택시 안에서 히토미에게 사랑한다고 우회적으로 고백을 한다.

제이와 기념사진을 촬영한 히토미는 제이로부터 각막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지만 주말에 도쿄에 다녀오겠다는 제이의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하는데 제이는 히토미의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여 주는데...